



2024 KDI Conference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

김희삼

GIST 교수

2024. 12. 11.

Table of Contents

01 교육과 사회 이동성이 왜 중요한가?

02 수저계급론은 근거가 있는가?

03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04 혹시 역차별?



교육과 사회 이동성이 왜 중요한가?

01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교육의 기여 경로

■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과 외부효과를 통한 전파

- 개인에게 새로운 기술, 지식, 사고방식 제공
- 사회 전체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혁신 역량 제고

■ 각국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교육에 투자

- 적어도 초·중등교육은 무상·의무교육화
 - 아래 단계 교육일수록 긍정적 외부효과가 크고, 다음 단계 교육의 등록률 제고 효과
- 교육 성과 제고를 위해 교육 개혁 시도
 - 졸업자의 평균 성취도를 0.5 표준편차 높이는 목표로 2005년에 교육개혁을 시작하여 20년 계획으로 진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GDP는 (교육의 질적 개선이 없는 국가와 비교할 때) 2037년까지 5% 상승할 수 있고, 75년의 장기적 관점에서는 36%까지 상승 가능(Hanushek and Woessmann, 2010)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사회 이동성의 중요성

- 사회 구성원들이 가진 재능의 최적 활용으로 생산성 제고
 - 사회경제적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는 정도(사회 이동성)에 따라 인적 자본 투자 유인과 노력 의지는 달라짐.
 - 재능의 사장이 방지되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가진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 유입되어 창의성과 혁신 제고
 - 단기적 분배보다 동태적 성장에 필요한 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고 사회 갈등 비용 감소
- 사회 이동성은 형평성이나 공정성만이 아닌 효율성을 포함
 - 특히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높을 때 경제성장에 긍정적 효과
 - 높은 세대 간 이동성은 경제 활동(1인당 부가가치), 교육 성취도, 사회자본과는 긍정적 상관관계를, 불평등과는 부정적 상관관계(Güell et al., 2018)
 - 높은 세대 간 이동성은 해당 지역의 1인당 소득 증가, 소득 성장 및 기타 경제발전 지표와 긍정적 상관성이 있었고, 사회 이동성이 낮은 동시에 소득 불평등이 높은 경우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Neidhöfer et al., 2024)



수저계급론은 근거가 있는가?

02

2.1. 한국인의 성공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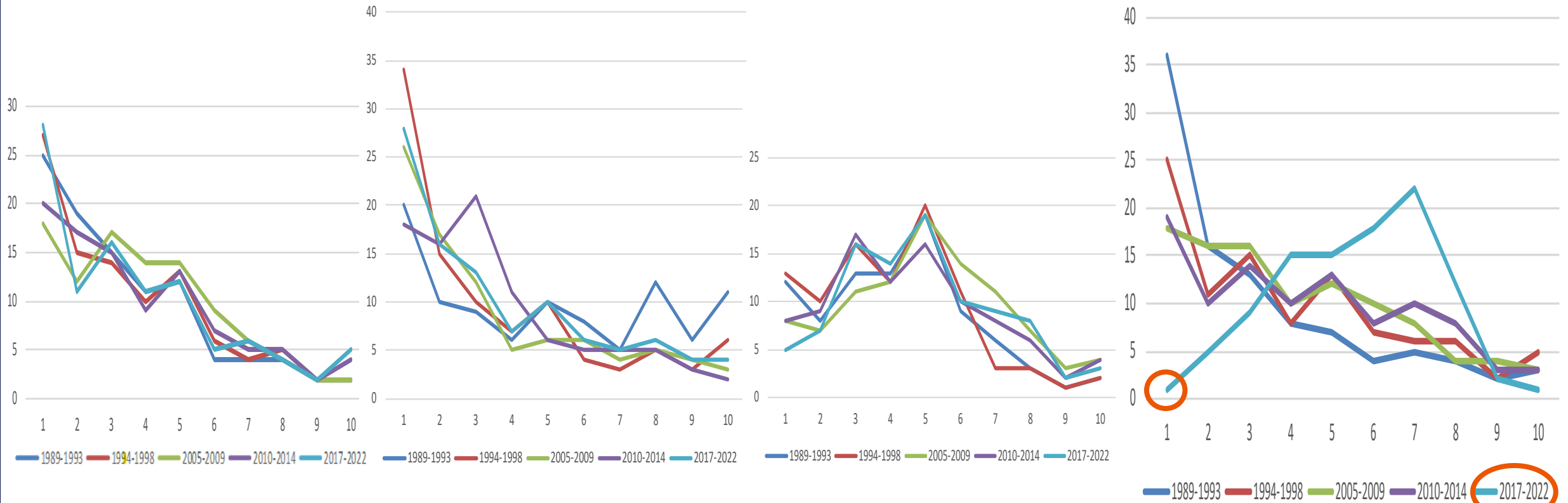
성공 요인(노력=1~10=운이나 연줄)에 관한 인식 추이의 국제 비교 (단위: %)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주: 가로축에서 1에 가까울수록 “결국에는 노력이 성공을 가져온다.”에 대해 강한 지지, 10에 가까울수록 “대개 노력이 성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운이나 연줄이 더 중요하다.”에 대해 강한 지지 의견.
 자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2.2. 한국은 수저계급사회인가?

수저계급론의 등장(2015~) –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청년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

경향신문 오피니언 금수저·흙수저는 현실, 한국은 신계급사회로 가고 있다

입력 : 2015.11.17 20:20 | 수정 : 2015.11.17 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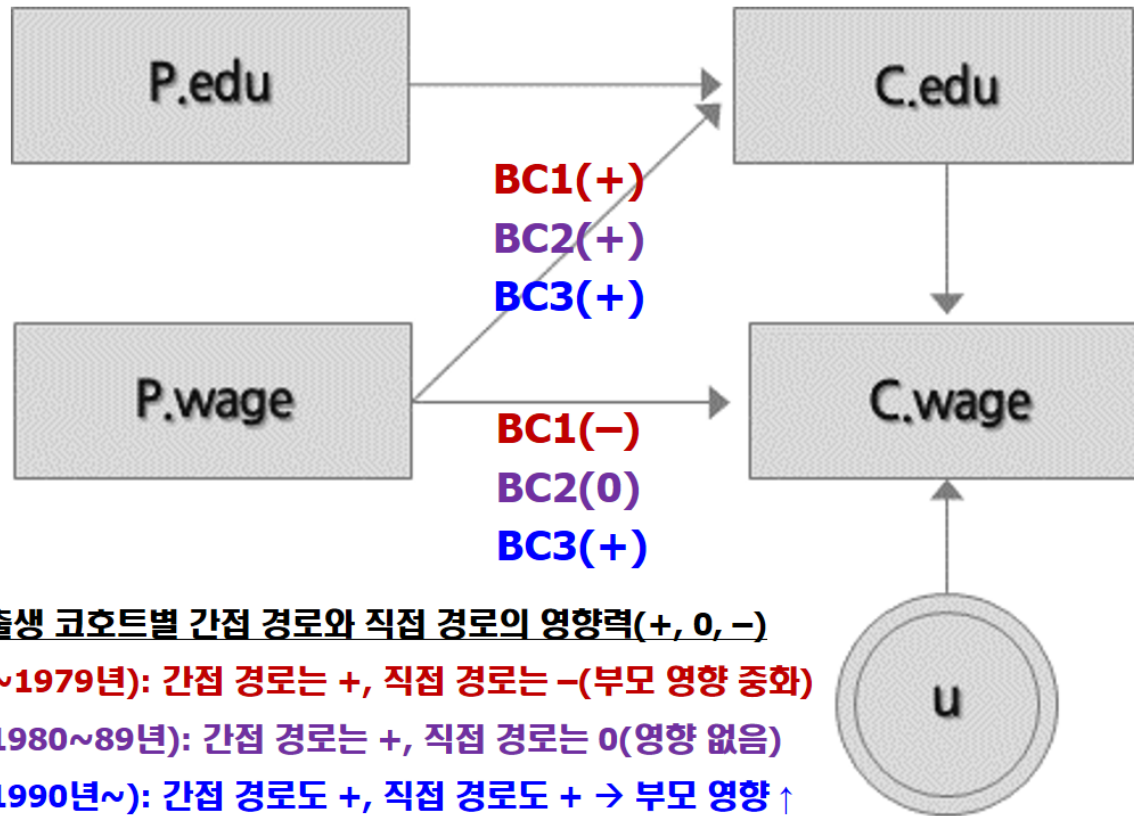
금수저, 흙수저는 과거에 쓰지 않던 용어다. 부잣집 출신을 뜻하는 영어 속어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에서 유래한 최신 유행어이다. 최근 부모 재산에 따라 자식의 경제적 지위가 금·은·동·흙수저로 결정된다는 '수저 계급론'이 청소년과 젊은이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흙수저로는 음식을 먹기 어렵고 물려줄 수도 없다. 부모 도움 없이는 자립하기 어려운 데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라는 열패감이 깔려 있다.



2.3.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출생 집단에서 세대 간 이동성이 낮아졌는가? 수저계급론은 근거가 있는가? 9

한국에서 부모 소득이 자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출생 코호트별 비교

간접 경로(부모 소득 → 자녀 교육 → 자녀 소득)와 직접 경로(부모 소득 → 자녀 소득)
 P.wage C.edu C.wage P.wage C.wage



- ❖ 자녀 출생 코호트별 간접 경로와 직접 경로의 영향력(+, 0, -)
- BC1(~1979년): 간접 경로는 +, 직접 경로는 -(부모 영향 중화)
- BC2(1980~89년): 간접 경로는 +, 직접 경로는 0(영향 없음)
- BC3(1990년~): 간접 경로도 +, 직접 경로도 + → 부모 영향 ↑

출생코호트	매칭된 자녀 수	비율 (%)
1 (~ 1979년)	2,651	30.0
2 (1980년 ~ 1989년)	2,996	33.4
3 (1990년 ~)	3,318	37.1
합 계	8,965	100

출생 코호트별 세대 간 소득 이동성 지수

birth cohort	IGM_1	IGM_2
1 (~ 1979년 생)	0.60	0.17
2 (1980~1989년 생)	0.51	0.13
3 (1990년 생 이후)	0.48	0.13

출생 코호트별 세대 간 소득 탄력성 및 소득 상관계수 추이

	IGE	IGC
birth cohort 1	0.037 (0.008)***	0.046 (0.010)***
birth cohort 2	0.063 (0.007)***	0.085 (0.009)***
birth cohort 3	0.102 (0.011)***	0.153 (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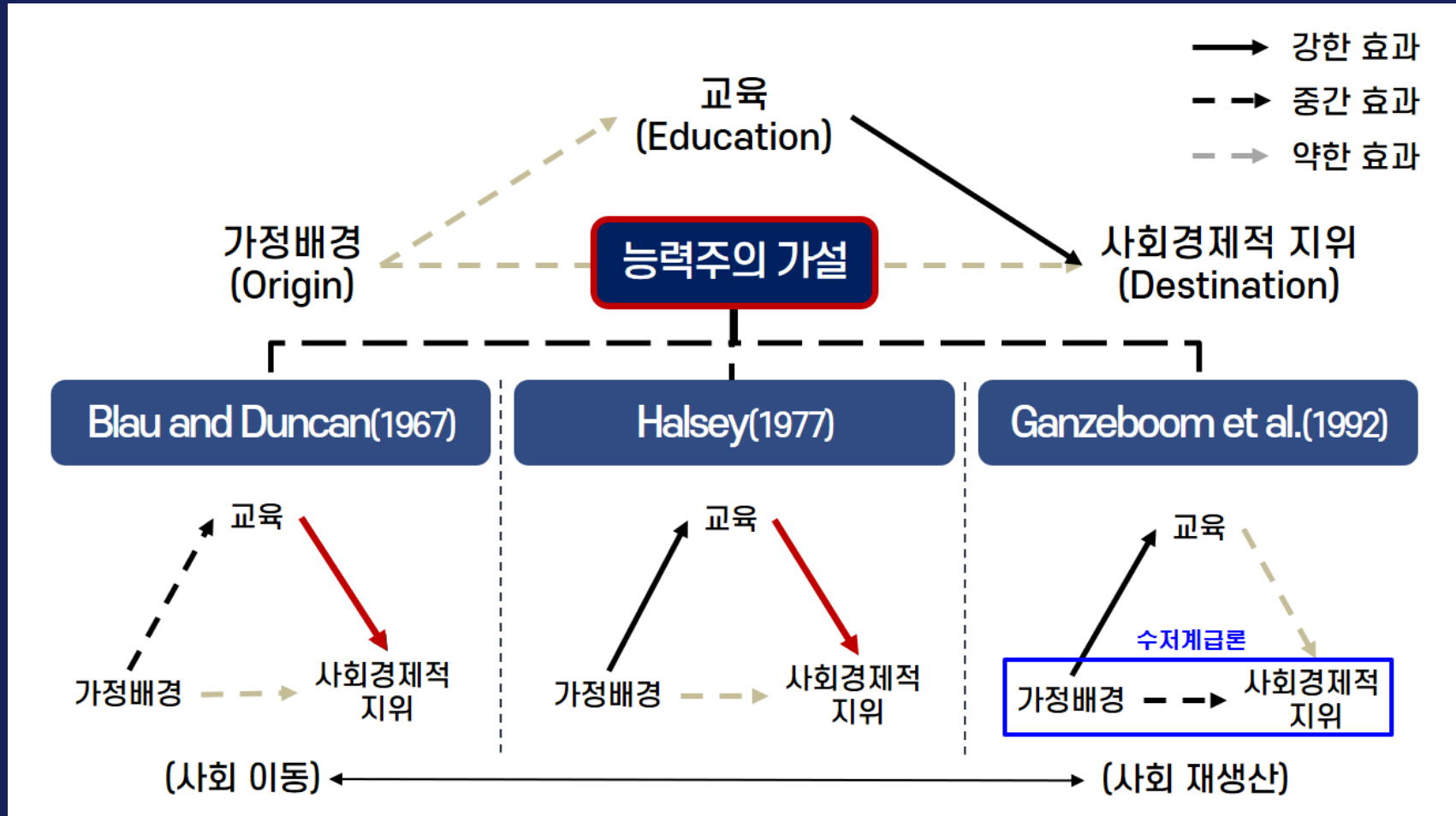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4차(2021년) 원자료.

출처: 민인식(2022), "사회 이동성과 교육 혁신의 필요성", <교육혁신과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KDI.

2.4. 교육은 사회 이동 사다리? 교육을 통한 대물림? 직접적 지위 대물림?

수저계급론은 근거가 있는가?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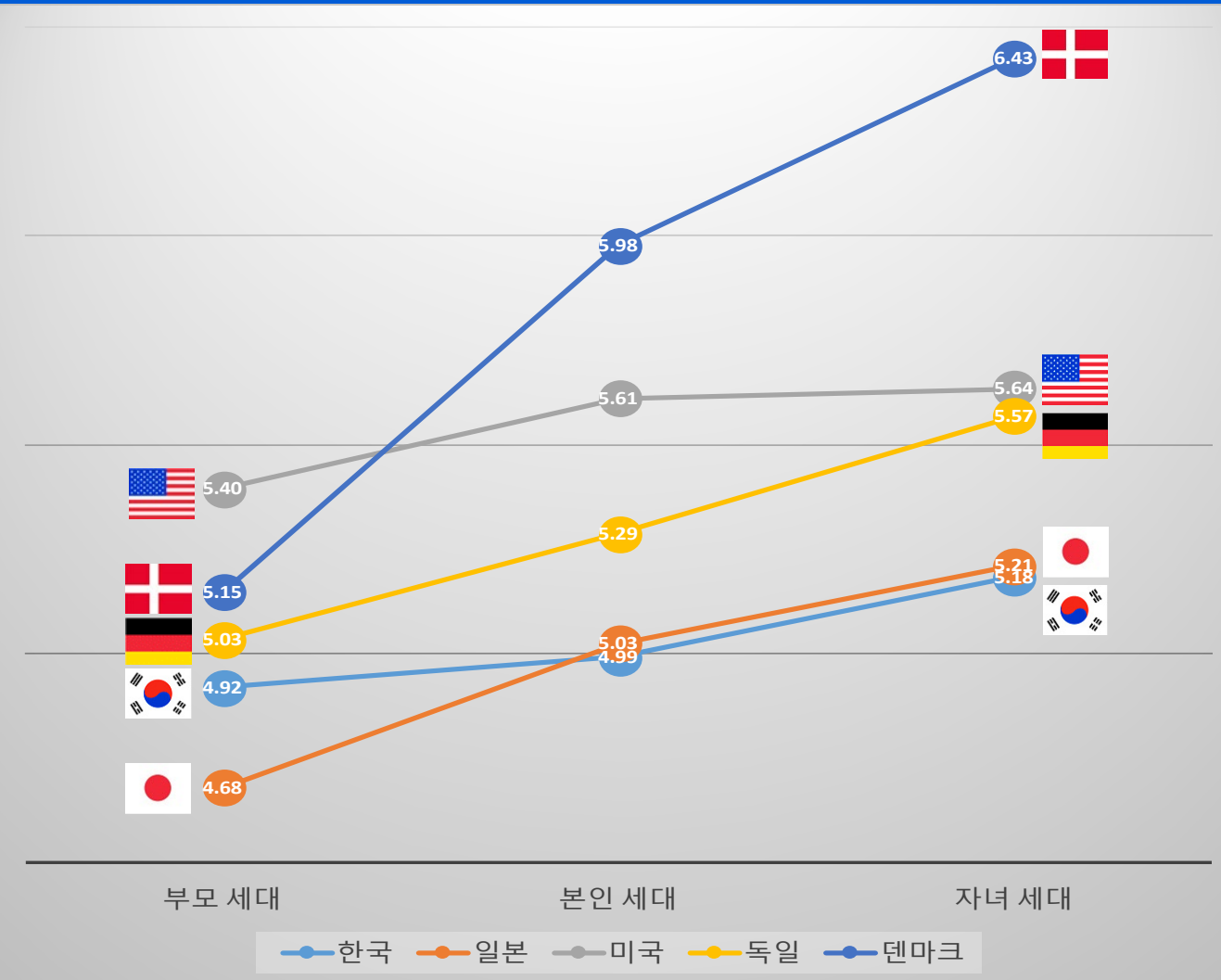
교육과 사회 이동성의 관계에 대한 가설



출처: 김경근, 김희삼, 심재휘(2023), < 코로나19 이후 계층 간 불평등 및 사회 이동성 추이와 정책적 시사점 >, 국민경제자문회의 용역과제 보고서.

2.5. 청년들은 교육을 계층 이동 사다리로 생각하는가?

교육의 사회 이동성 제고 역할에 대한 각국 청년의 인식: 부모 세대, 본인 세대, 자녀 세대



주: 그림의 숫자는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을 나타냄.

“교육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귀하의 부모, 귀하, 귀하의 자녀 세대에서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각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에게 자녀가 없더라도 귀하 다음 세대의 상황을 예상하여 응답해주세요.”

(계층 대물림의 통로 = 0 ~ 10 = 계층 이동의 사다리)

자료: EBS가 IPSOS에 의뢰하여 2022년 8월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의 20대 청년 2,8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교육 격차와 공정성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임.

(설문지 작성: 김희삼,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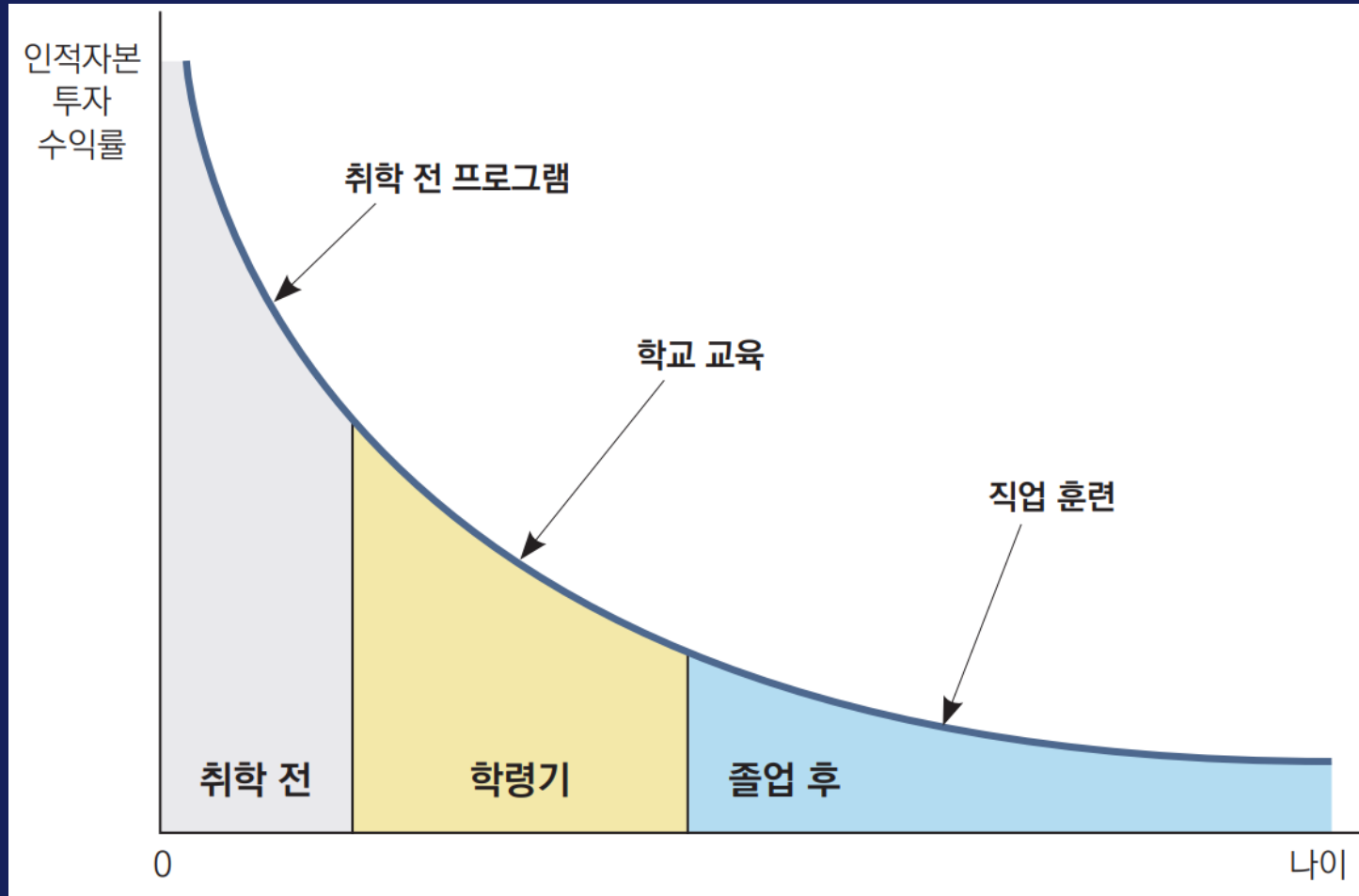


무엇부터 하면 좋을까?

03

3.1. 왜 조기 개입이 중요한가?

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인적 자본 투자의 시기별 수익률 (“Heckman Cu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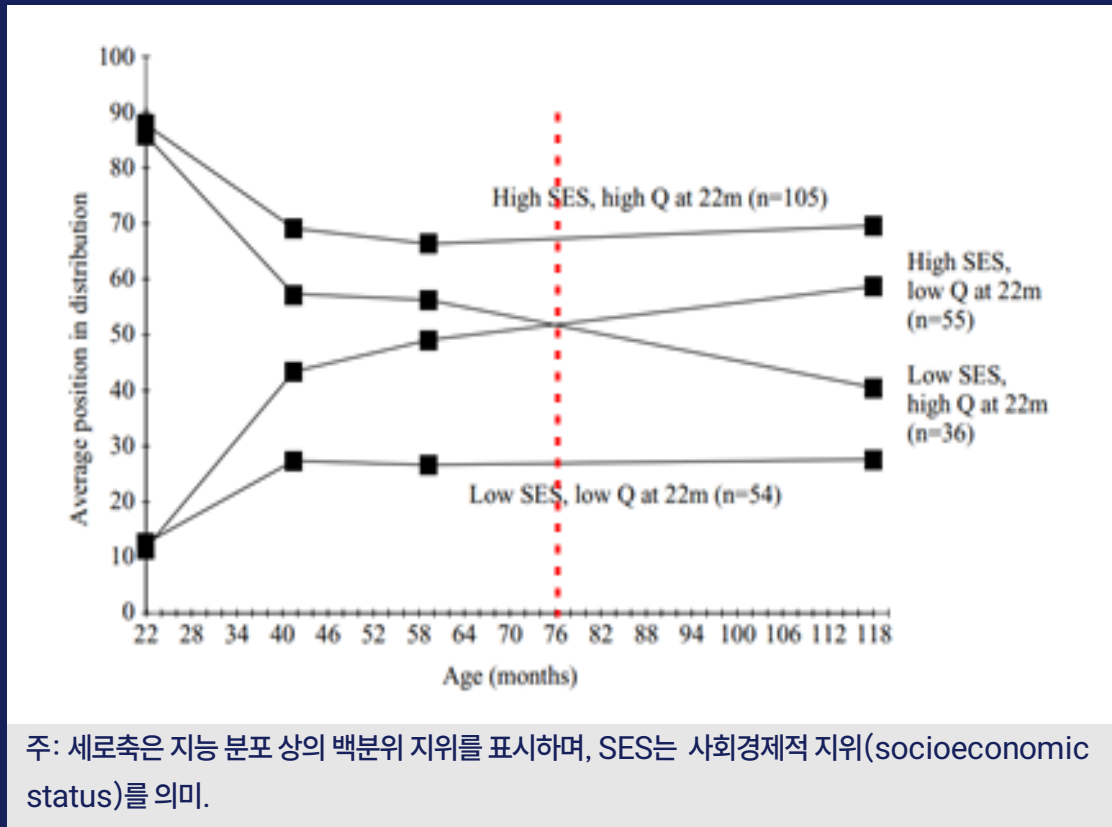


자료: Carneiro and Heckman(2003). 김희삼(2021), <왜 지금 교육경제학인가?> (EBS BOOKS)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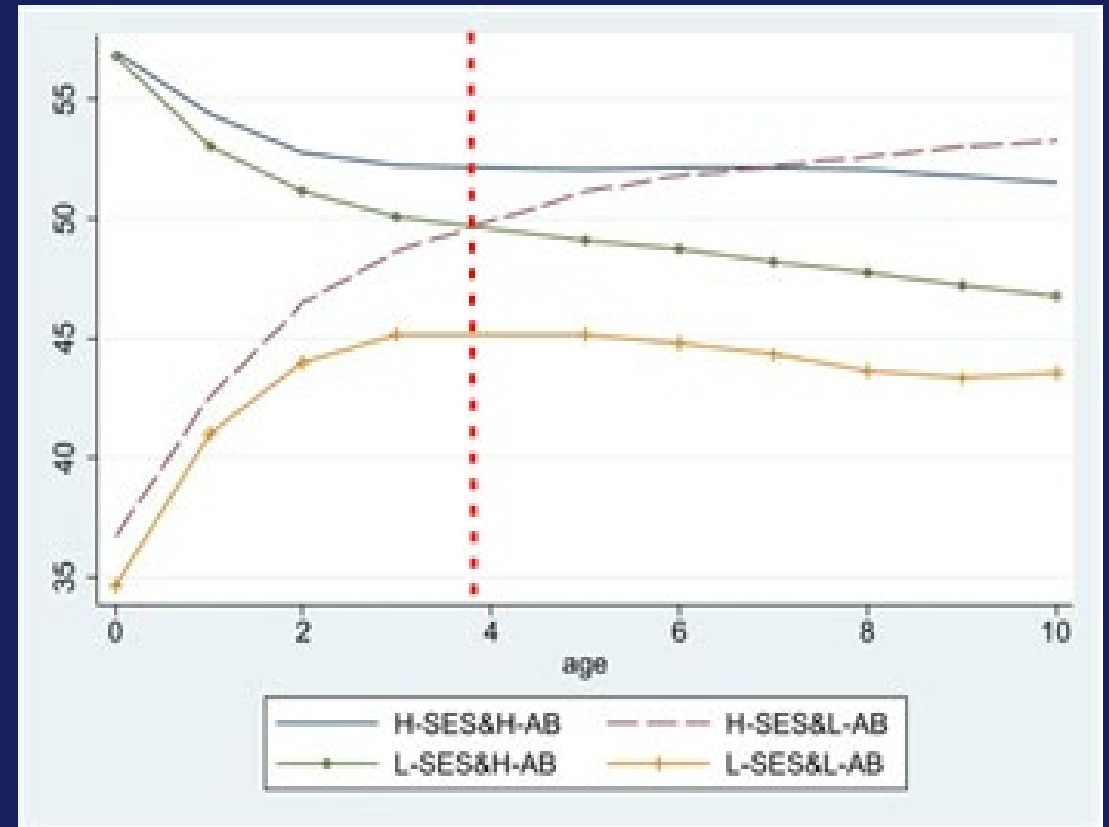
3.2. 공부 머리는 유전일까?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아동 지능의 발달 추이

영국 (7세경 역전)



한국 (4세경 역전)



자료: 1970년생 영국 아동을 생후 추적 조사한 자료(1970 British Cohort Study)를 이용한 Feinstein(2003)의 연구에서 인용.

자료: 한국아동패널(PKSC) 1차(2008년)~11차(2018년) 자료를 이용한 한국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에서 인용.

3.3. 초등교육 수요자에게 교육과 돌봄의 구분이 중요한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 중 가장 필요한 과제에 관한 인식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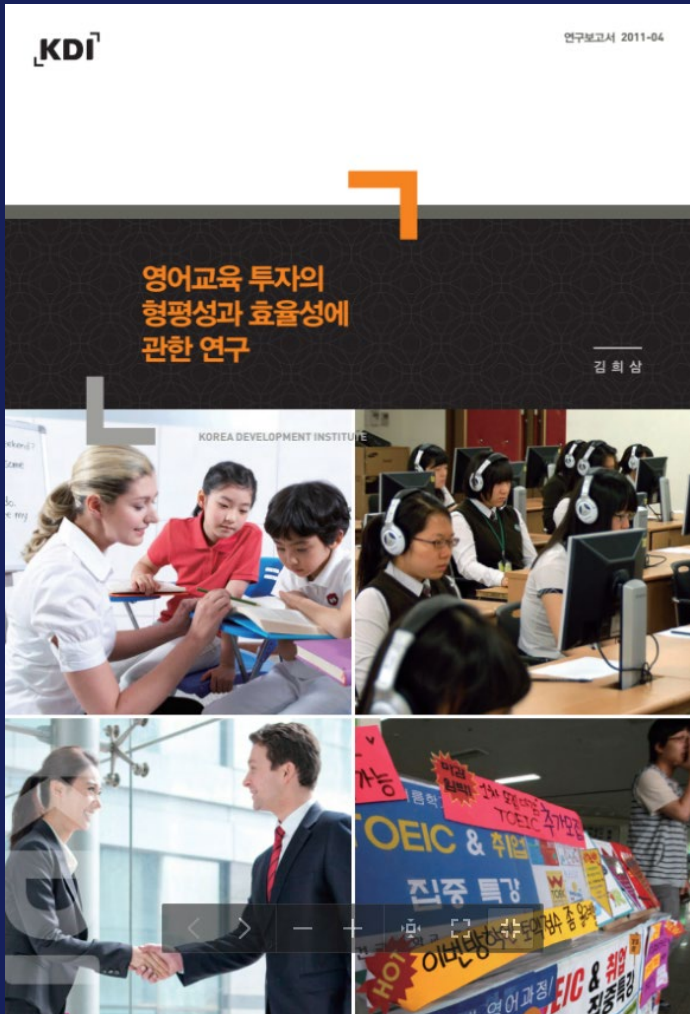
가장 필요한 교육개혁 과제	2023								
	전체		자녀가 있는 집단		대학생 학부모		지역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1순위	1+2 순위	특별·광역·특별 자치시	중소도시	군(읍·면) 지역
							1순위		
유보통합	1,084 (27.1)	1,644 (41.1)	614 (26.2)	949 (40.5)	83 (21.3)	137 (35.2)	484 (26.5)	535 (27.9)	65 (25.5)
늘봄학교	1,392 (34.8)	2,345 (58.6)	830 (35.4)	1,367 (58.3)	127 (32.6)	207 (53.2)	649 (35.5)	655 (34.2)	88 (34.5)
디지털 교육 혁신	693 (17.3)	1,496 (37.4)	386 (16.5)	847 (36.1)	65 (16.7)	140 (36.0)	337 (18.4)	315 (16.4)	41 (16.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492 (12.3)	1,542 (38.6)	300 (12.8)	913 (38.9)	62 (15.9)	156 (40.1)	198 (10.8)	253 (13.2)	41 (16.1)
대학규제혁신·구조개혁	339 (8.5)	973 (24.3)	216 (9.2)	616 (26.3)	52 (13.4)	138 (35.5)	159 (8.7)	160 (8.3)	20 (7.8)
계	4,000 (100.0)	8,000 (200.0)	2,346 (100.0)	4,692 (200.0)	389 (100.0)	778 (200.0)	1,827 (100.0)	1,918 (100.0)	255 (100.0)

주: 제시된 교육개혁 과제들 중 2가지를 순위대로 고르게 한 설문 결과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교육여론조사 결과.

3.4. 영어 울렁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꼭 큰돈을 써야 하나?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부터 영어 말하기를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서울 유아 영어학원 월평균 수업료 119만원... "대학 등록금 2배"

구은모 기자
입력 2023.08.21 17:28 수정 2023.08.21 17:28

교육시민단체, 학원 329곳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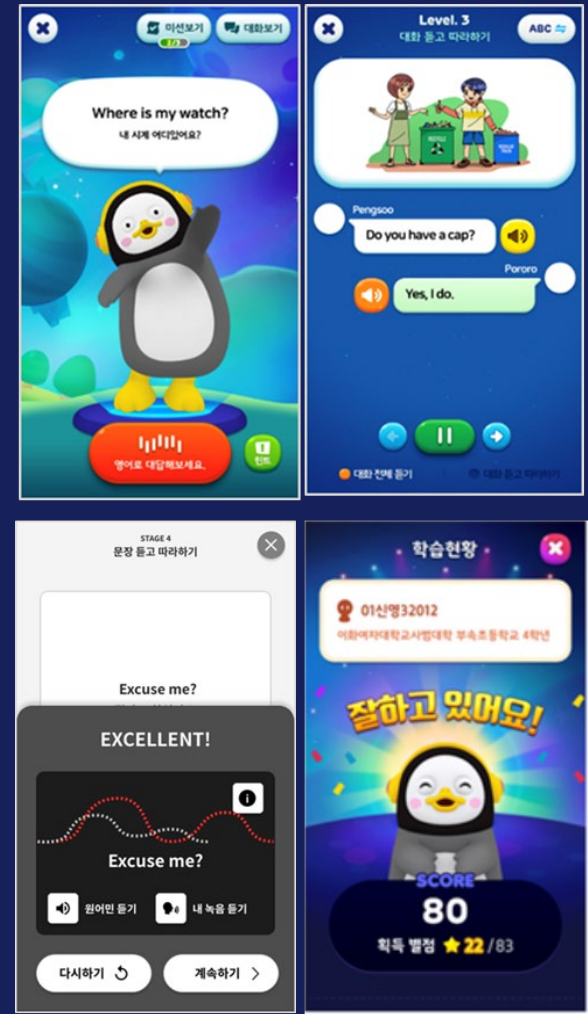
서울시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 월평균 학원비가 119만원으로 대학교 등록금의 2배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 좌장을 맡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사교육포럼 임명영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걱세 영유아사교육포럼 10주년 기념 콘퍼런스'를 열고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전년 대비 18개 늘어난 총 329개로 집계됐다. 지역은 강남-서초가 87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동-송파(59개), 강서-양천(34개), 은평-서대문-마포(30개) 등으로 나타났다.



3.5. 한국의 교육 형평성은 실제로 낮아졌는가?

PISA 평균 점수와 교육 형평성 지표들의 국제비교 및 추이

	평균 점수		기초수준 미달 비율		가정 배경 영향력	
	2000	2015	2000	2015	2000	2015
영국	528	500	12.0	19.1	41.6	34.9
핀란드	540	523	7.4	12.0	24.5	34.6
미국	499	487	20.1	22.9	37.2	26.0
일본	543	529	8.1	11.1	36.6*	38.7
홍콩	542	533	8.2	9.2	17.7	13.7
한국	541	519	6.0	14.5	22.0	42.8
OECD	501	492	20.8	21.6	27.6	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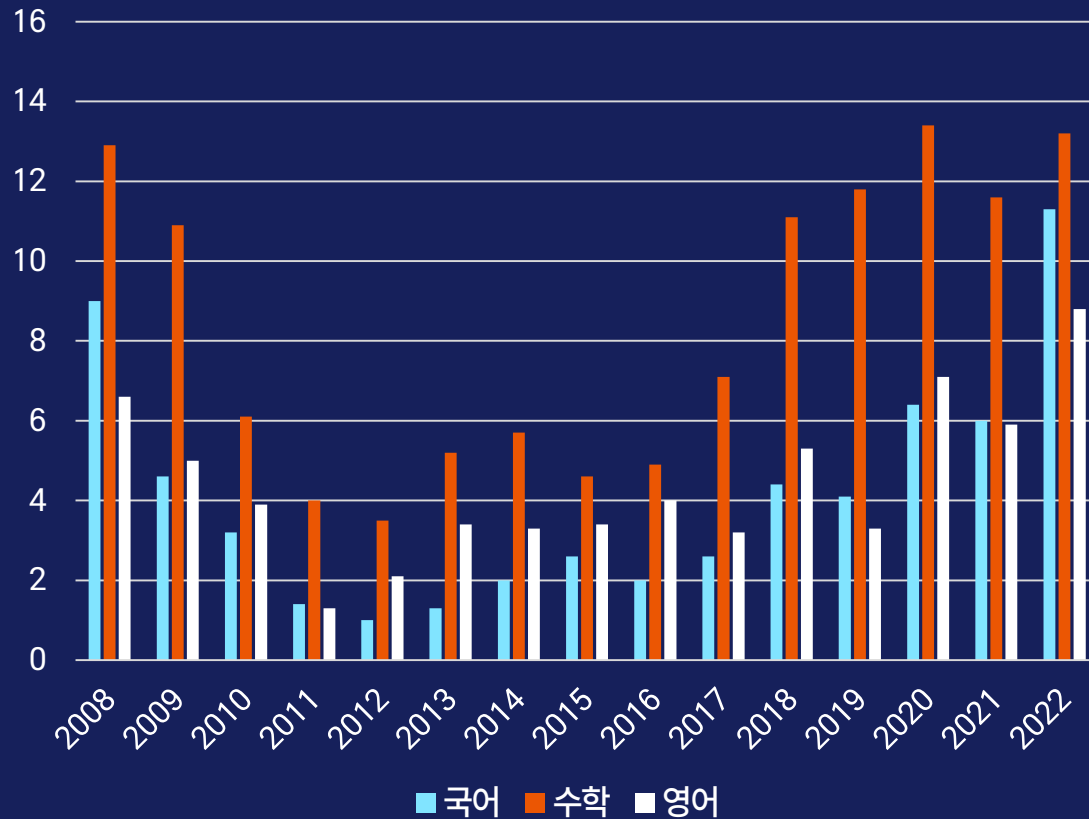
주: 각 연도별 숫자는 각 나라의 읽기, 수학, 과학 세 영역의 해당 값 평균임. 기초수준 미달 비율은 2수준 미만 학생의 비율임. 가정 배경 영향력은 PISA 조사에 포함된 개별 학생의 경제·사회·문화 지위지수(ESCS)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회귀분석모형)의 추정계수값임. *일본은 2000년에 ESCS 변수가 조사되지 않아 2003년 값으로 대신함.

자료: OECD PISA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한 이주호·지상훈(2018), “교육 불평등에 대한 실증분석과 정책방향” (<수저계급론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원)으로부터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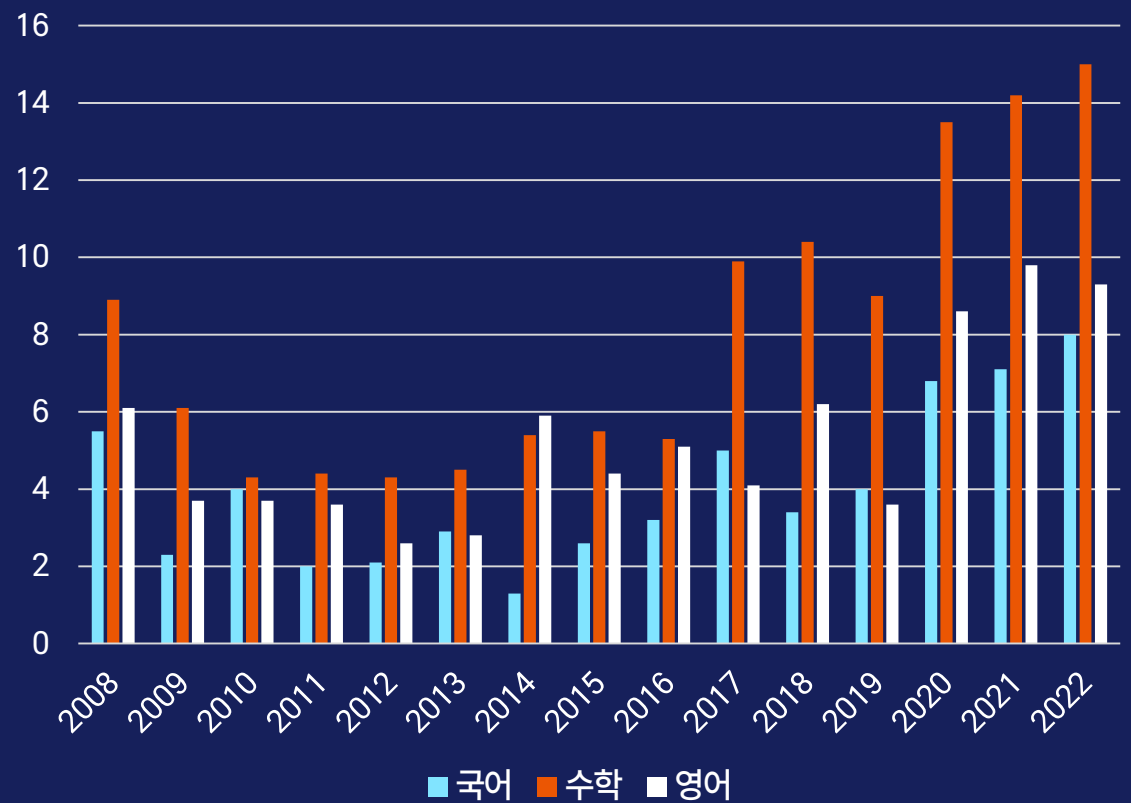
3.6.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왜 이렇게 늘게 됐을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추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주: 2008~2016년은 전수조사, 2017년 이후는 표집조사.
 자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각 연도.

3.7. 가정환경과 학업 성취 수준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학교별 기초생활수급 대상 학생 비율에 따른 학업 성취 수준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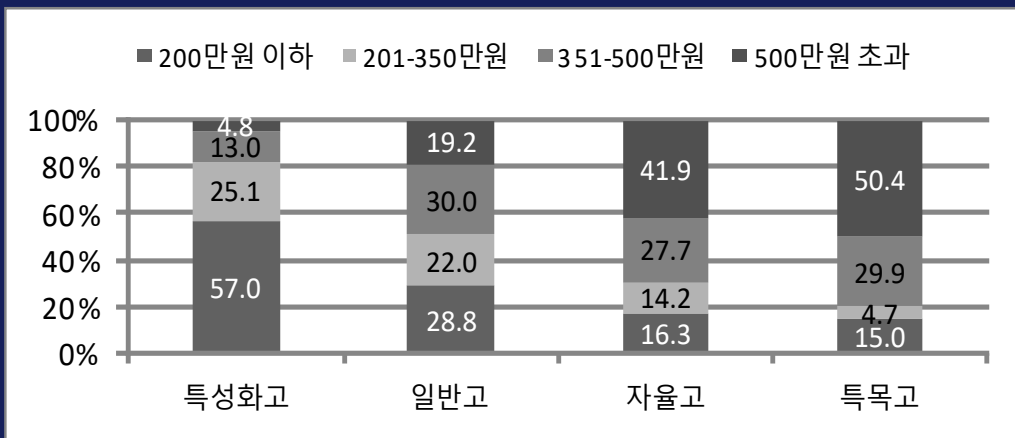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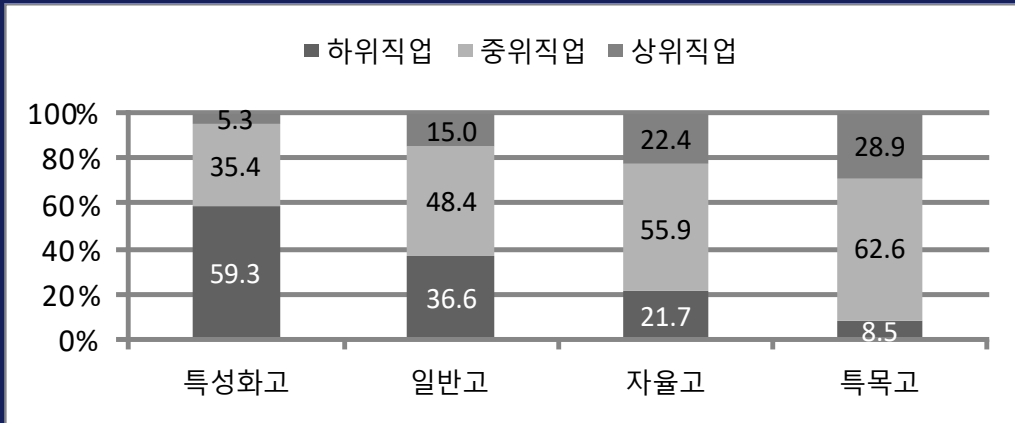
중학교	2% 미만				2%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 학력 미달
국어	49.5	38.2	9.2	3.1	41.2	42.2	12.5	4.1	36.7	45.0	14.4	3.9	33.3	46.1	14.7	5.9
수학	32.1	42.6	18.3	7.0	19.8	46.1	23.9	10.2	13.4	43.0	30.9	12.7	9.3	40.1	33.4	17.2
영어	41.8	41.5	15.0	1.8	26.8	49.2	21.2	2.8	18.3	50.5	27.6	3.6	13.2	50.3	31.4	5.1

고등학교	2% 미만				2% 이상 5% 미만				5% 이상 10% 미만				10% 이상			
	4 수준	3 수준	2 수준	1 수준	4 수준	3 수준	2 수준	1 수준	4 수준	3 수준	2 수준	1 수준	4 수준	3 수준	2 수준	1 수준
국어	41.4	41.5	14.4	2.7	30.5	49.4	17.0	3.2	24.8	51.1	20.0	4.2	18.5	47.8	25.7	7.9
수학	43.9	32.2	18.0	5.9	32.9	37.1	22.9	7.1	23.1	38.3	28.4	10.2	16.6	30.1	36.2	17.0
영어	54.8	31.9	11.4	2.0	43.1	39.4	14.6	2.9	34.9	40.4	20.9	3.9	25.3	41.0	25.6	8.1

자료: 서민희 외(2020). 김나영(202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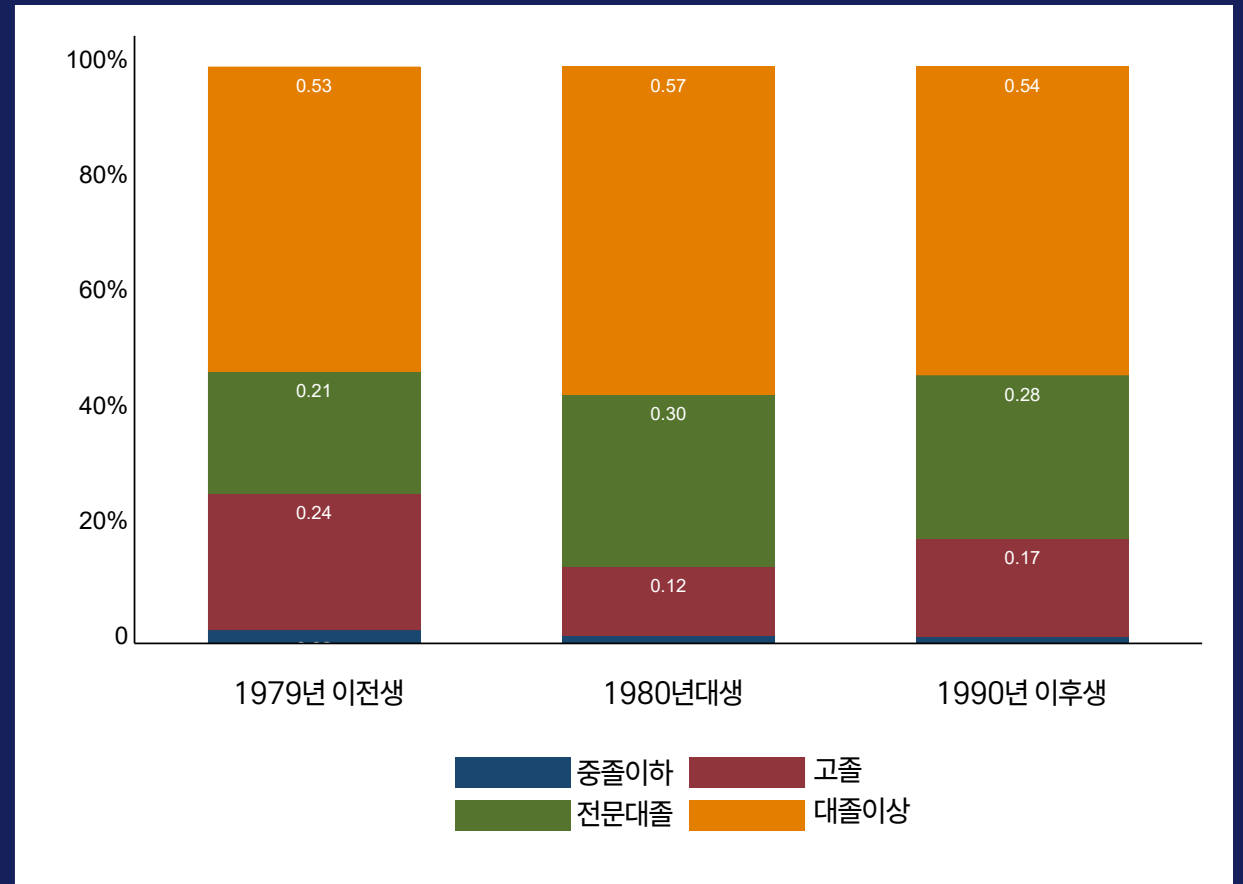
3.8. 직업교육을 선택한 청소년은 어떤 가정환경을 갖고 있나?

고1 학생(1990년대생)의 고교 유형별 가정 배경



자료: 서울교육종단연구 2010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함. 김희삼(2014)에서 재인용.

부모 학력이 고졸일 때 자녀 학력의 구성 비율



자료: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24차(2021년) 원자료.

출처: 민인식(2022), "사회 이동성과 교육 혁신의 필요성", <교육혁신과 인적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KDI.

유아·초등·중등 교육 단계의 격차 해소와 재능의 계발 및 만개를 위한 정책 방안

■ 유아교육

- 양질의 유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유보통합과 유아교육의 무상화 추진: 만 5세부터 3세까지 단계적 무상(·의무교육)화

■ 초등교육

- 돌봄과 교육의 결합이 필요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공교육 역할 제고: 늘봄학교 정착, 저학년 시수 확대(수업 혁신 동반) 검토
- 환경의 영향력이 강한 영어 능력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초등학교 영어 출발점 교육의 강화: 현행 초 3에서 시작점 하향 검토
- 다양한 잠재력의 발견을 돕는 특기적성교육의 확대: 사립초등학교에 준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스쿨버스 운영 등 검토

■ 중등교육

- 중학교 단계의 기초학력 보장 및 개별 학생 보살핌 강화: 중학교 교사 대 학생 비율 감소(피드백 및 멘토링 강화), 에듀테크 활용
-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 교육자원의 활용 범위를 학교 밖으로 확장: 외부 전문가의 개방형 강사 초빙 확대(미개설 교과 중심)
- 직업계고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성공 사다리를 다양화: 정부 지원과 기업 협력을 바탕으로 직업교육과정 유연성 제고

- [기타] 균형 선발 확대(계층 간·지역 간 사교육 불이익 고려), 학령기 전반에 걸친 장학금 확충(STEM 분야 국비장학생 확대)



혹시 역차별?

04

4.1. 우리 아이들은 어떤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는가?

균등한 출발선(=공정?) vs 불균등한 출발선(=역차별?)



4.2.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역경 속의 아이는 (부모가 아닌) 어른이 내밀어 준 손을 기억한다.



노인들의 회합 장소가 밤에 무료 학원으로 탈바꿈한 모습 (사진 제공: KBS)



제비학원 교사로 자원봉사를 하는 어르신들 (사진 제공: KBS)



무료 학원 아이들을 위해 주먹밥을 만드는 모습 (사진 제공: KBS)

